

벤처업계 대표들, 이희범 산자부장관과 간담회

- '투명경영 실천' 및 '벤처활성화 지원' 공감대 -



협회 조현정 회장 등 벤처업계 대표들은 지난 11월 14일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희범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명경영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벤처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조현정 회장은 벤처업계의 투명경영 실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과거 분식회계 벤처기업에 대한 문제해소 기회 부여와 벤처활성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간담회는 최근 벤처업계 일부 기업인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벤처업계에 대한 신뢰성 추락 우려와 함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벤처활성화정책과 벤처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장관 외에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 산업자원부 허범도 차관보, 이동근 산업정책국장과 금융감독위원회 문재우 상임위원과 이재식 회계감독 1국장 등이 참석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조회장을 포함하여 협회 임원사 대표, 여성벤처협회 임원, 벤처캐피탈협회 임원 등 CEO 21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벤처업계 CEO들은 투명경영을 위한 자사의 추진방향과 당면한 어려움을 설명하며 벤처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의지를 요청했다. 조현정 회장은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투명경영 실천포럼'을 발족하고, 재무분석 및 종합 진단 서비스가 가능한 'Risk warning system'을 개발, 보급하여 개별 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는 등 투명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데이터(KED)와 업무협약 체결

- 회원사 신용관리 및 경쟁력 강화에 공동 협력 -



협회(회장 조현정)는 한국기업데이터(대표 배영식)와 지난 11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의 신용 관리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동 협력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1700여 개 회원사가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정보조회서비스인 Cretop/Kiboline(크레탑/기보라인)과 신용평가서비스 C3(씨큐브), A2(전자신용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자체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정 회장은 "벤처기업은 기업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편이나 이번 협약을 통해 거래기업 및 자사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회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한 업무지원 협력 -



협회는 지난 11월 11일 다산회계법인(대표 김일섭)과 '벤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다산회계법인은 협약을 통해, 벤처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을 협회 회원사,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과 상장 대기중인 기업들에게 권장하고 이를 위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산회계법인은 효과적인 중소·벤처기업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개별 회사에 구축해 운영하도록 교육훈련을 주관할 예정이다.

더불어 협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IT Solution을 개발하여 회원사들에게 배부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일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협회는 오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회원사, 신·구 임원, 공헌그룹,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협회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회원사의, 회원사에 의한, 회원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오후 6시부터 개최되는 본 행사에서는 협회의 10년 성과발표 및 향후 비전 선포, 벤처산업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전달, 김영세 대표의 keynote speech 등이 진행되며, 이어 2005년 송년의 밤 행사로 정부, 언론, 학계, 회원사 간의 네트워킹 만찬, 축하 이벤트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사전 행사로 지방벤처 멘토링, 대학생기업·후견기업 간 세미나, 사진전 등이 열린 계획이다.

조현정 회장은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선포하고, 협회의 창립부터 최근까지의 성과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32p 광고 참조)

중간관리자역량강화 3기 과정 수료 및 신입사원 입문 2기 과정 개최



'벤처기업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3기 과정' 집체교육이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용인 퓨처리더십센터에서 열렸다. 벤처기업 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집체교육에서 교육생들은 역할 수행 노하우와 애로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으며, 마지막날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3기 과정은 지난 11월 2일 개강해 매주 수요일 6시간씩 3주간에 걸쳐 강의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벤처기업 신입사원 입문 2기 과정'은 지난 11월 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다. 벤처기업에 재직 중인 1~2년차 직원 및 신입직원 78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직의 신바람을

넣는 신입사원의 자세, 직장예절 및 이미지메이킹,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Outdoor Program, Well Being 컨디션 트레이닝, 창의적 문제해결과 기획력 향상, 한계극복 오대산 중주 산악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산·울산지역 벤처기업을 위한 경영클리닉 개최



협회는 지난 11월 21과 22일 각각 울산과 부산에서 '지역 벤처기업을 위한 멘토링 및 경영클리닉'을 개최했다.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울산지회 멘토링'은 울산지역 벤처기업 지엠비, 큐바이오텍, 네트의 기업 관계자가 참가하여 기업 경영에서의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 대표자에 대한 PI 컨설팅을 진행하여 대표자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컨설팅이 실시되었다.

'부산지역 벤처기업을 위한 경영클리닉'에는 KBS-2R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진행자인 이영권 박사가 나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VioNet 이완순 대표가 'PI(Personal Identity) 컨설팅'을 진행했다. 협회는 오는 12월 중순 제주지회 경영클리닉을 개최할 계획이다.